

인도 2013-14 예산안과 그 의미

작성자 :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작성일 : 2013년 3월 20일

■ 지난 2월 28일 인도중앙정부는 예산 편성의 목표를 ‘내성적 성장과 지속 성장,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두고 작성한 2013/14년 예산안을 발표함.

- 2013/14년 예산은 2012/13년 예산보다 16.4% 증가한 16조 6,529억 루피(약 330조 원)로 책정하였으며,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4.8%로 정하여 재정건전화를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여줌.
- 인도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문의 예산은 작년보다 3.3% 낮추고, 경제개발계획 부문의 예산은 3%정도 높게 책정하여 내성적 성장과 지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임.
- 한편, 총수입은 조세수입을 작년보다 2% 높이고, 자본수입은 2.3% 낮추어 조세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예산을 책정함.

표 1 2013/14년 인도 예산안

(단위: 천만루피)

구분	2011-2012 실질	2012-2013 예산안	2012-2013 수정 예산	2013-2014 예산안	증감률
총수입	1,304,365	1,490,925	1,430,825	1,665,297	16.4
조세수입	751,437	935,685	871,828	1,056,331	21.2
직접세	629,765	771,071	742,115	884,078	19.1
간접세	121,672	164,614	129,713	172,252	32.8
자본수입	552,928	555,241	558,998	608,967	8.9
부채	515,990	513,590	520,925	542,499	4.1
총지출	1,304,365	1,490,925	1,430,825	1,665,297	16.4
비계획부문 지출	891,990	969,900	1,001,638	1,109,975	10.8
계획부문 지출	412,375	521,025	429,187	555,322	29.4
재정적자	515,990 (5.7)	513,590 (5.1)	520,925 (5.2)	542,499 (4.8)	4.1

자료: indiabudget.nic.in

■ 국가의 신용등급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정수지 적자는 매년 0.6%p씩 감소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4.8%로 정함.

-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대비 4.8%로 정하고, 매년 감축하여 2013년 최종적으로 GDP대비 3%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임.
- 최근에 낮아진 국가신뢰도를 올리고,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한편, 경제개발에 중요한 주요 부문별 예산은 작년대비 평균 22%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어촌 부문의 발전을 위해 농촌개발 예산이 평균보다 크게 증액되었으며, 특히 관개 및 홍수 통제 예산의 증가율이 180%로 가장 크게 증액됨.
-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에너지 부문의 예산은 작년대비 6.8%만 증액된 반면 산업 및 광업, 그리고 교통부문의 예산이 평균보다 높게 책정됨.
- 특히 통신과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예산이 평균보다 거의 2배 이상 증액된 것이 이번 예산의 특징임.
- 한편 일반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여전히 선심성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요 부문별 지출 예산안

(단위: 천만루피)

산업	2012-2013 수정치	2013-2014		증감률
		예산안	비중	
농업 및 관련부문	15,971	18,781	2.8	17.6
농촌개발	43,704	56,438	8.3	29.1
관개 및 홍수 통제	428	1,200	0.2	180.4
에너지	148,230	158,287	23.3	6.8
산업 및 광업	39,228	48,010	7.1	22.4
교통	103,023	133,488	19.6	29.6
통신	8,257	12,380	1.8	49.9
과학기술 및 환경	12,119	17,587	2.6	45.1
일반경제서비스	21,017	31,602	4.6	50.4
사회서비스	158,339	193,043	28.4	21.9
일반서비스	5,860	9,307	1.4	58.8
총계	556,176	680,123	100.0	22.3

자료: indiabudget.nic.in

■ 이번 예산안은 2012/13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하락한 것을 내년에 6%

성장률로 끌어 올리고, 2015년부터 8% 성장 시대로 다시 진입한다는 목표하에 작성된 것임.

-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세 등을 통한 수입이 작년보다 더 많이 계획되어 있어 올해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세수입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경제가 느리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세수의 대안으로 소위 부자세(rich tax) 증세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으나, 이번 회기연도에는 연소득 1crore(약 2억 원) 이상의 개인에게 10%의 추가세(surcharge)를 부과하는 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음.
-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 수입 및 소득이 1억 루피(약 20억 원)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를 인상(자국기업 5%에서 10%로, 외국기업 2%에서 5%로 증세)하여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됨.
- 10억 루피 이상의 공장과 기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액의 15%를 세금 공제하고 반도체 제조에 대한 플랜트 및 기계에 무관세 제공 등 산업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음.
-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석유보조금은 작년대비 3,188억 루피 적게 책정하였으며, 앞으로 석유보조금은 축소되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인도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비록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목표를 두고 편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장은 기대이하라는 평가임.

- 인도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된 지난 2월 28일 뭄바이 센섹스 증시지수는 전일 거래대비 1.17% 하락하여, 올해 예산안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줌.
- 특히 경유 등의 보조금을 축소하는 마당에 SUV자동차의 소비세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업계는 크게 실망함.
-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도정부가 농촌일자리 프로그램, 빈민층 곡물제공 사업 등에 상당한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기대보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쉽게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더욱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조세수입은 기대 이하의 수준에서 거두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지지부진한 공기업 지분 매각 등에 의한 재정건전화 달성은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됨.
- 다만 건설, 부동산, 전력, 섬유 등의 분야는 이번 예산편성으로부터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